

# ‘건축사’를 ‘건축사’로 부르지 않는 이 ‘문디’가 아니다!

## ARCHITECT is NOT gil-dong's father!



조중기 | Zo, Chung-gi, KIRA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이사

### 약력

- 건축사사무소 간향 대표
-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설계전공
- 도시환경포럼 펠로우

그리 멀지 않는 내 소식적에, 경상북도 안동지역 어느 마을에서 두 아이의 싸움이 벌어지자 동네 어른들은 유독 한 아이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꾸짖고 있었다.

“니, 저 아래 (누구) 집 손자 아이가?”  
“(누구)집 그 귀한 손자가 이 무슨 싸움질이고?”

이 아이는 할 말은 못하고 무언가 억울한 심상을 지우지 못하니,

“그래도 넌 문디 아이가?”

싸운 이유도 비슷했다. 냉정히 보면 이 아이가 조금은 더 억울한 경향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향한 꾸지람을 서슴지 않았다.

아마, “문디”라 했으니 의아해 마지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경상도 북부지방 외의 분들, 특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더 더욱 그리 할 것이라라고 본다. 이해를 더 붙이자면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사용되는 ‘문딩이’ 혹은 ‘문디’라는 사투리는 본래 ‘문둥(文童)’ 즉 ‘글을 배우는 아이’라는 존경의 말이다. 해서 글깨나 배운 아이가 글도 모르는 아이와 싸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를 꾸짖은 것이다. 이제는 저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하는 ‘한센병’의 의미인 ‘문둥이’와는 사뭇 다른 언어의 쓰임새임을 금방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글을 안다는 것! 식자(識者) 즉 배운 자, 또는 교수, 건축사, 고위공무원 등 지식이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배고픔도 참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회적, 윤리적으로 사회를 바르게 알리고 이끌어 나가야하는 책임감 있는 품격을 지녀야 하는 것 아닌가? 존경의 대상으로 말이다.

근자에 ‘소위, 글깨나 한다는 분들’이 UIA는 ‘국제건축사연맹’이며, AIA는 ‘미국건축사협회’라 바르게 말하지 않는 저 짐작치 못한

행위나 비겁함은 정말 ‘모르고 행한 자’ 보다 못한 낮부끄럽다 못해 비겁하다. 하물며 ‘UIA국제건축대회’ 유치를 두고 ‘국제건축가연맹총회’ 유치라 하고는 버젓이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위촉장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이 가관이다.

더 바보스러운 사실은 스스로 ‘건축사’이면서 ‘건축사’를 ‘건축사’로 바르게 알리지도, 사용하도록 하지도 못한 대한건축사협회를 대표한 우리의 회원들은 진정 협회의 대표자이었던지 반문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또 다시 되돌아보자! 다 아는 사실을...

UIA Accord에서의 Architect 정의 : “건축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실무하고 있는 관할 지역 내에 실무를 하기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자격증을 취득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Architect Definition: The designation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IA 정관에서의 정회원자격의 기준: “현재 미국의 어떠한 주에서든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칭호를 사용할 법적 자격이 있는 자는 본 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Eligibility for Architect membership: Individuals who are currently entitled under law to practice architecture and use the title Architect in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are eligible to be Architect members in the Institute)

“있는 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일 뿐! 일부러라도 거짓으로라도 ‘건축사’라 불러 달라는 말이 아니다.” ■